

<紀行文>



濠洲와 天然 고무 生産地

日本 橫濱 고무(株)社長 島崎敬夫

~橫濱 고무(株)의 社長이며 고무工業會 會長 타이어協會 會長의 要職에 있는 島崎敬夫氏가 近者 古河그루옴의 一員으로서 訪濠, 歸路 天然고무의 生産施設을 視察했다. 以下는 島崎氏의 視察旅行의 大要이다~

天然고무 生産地에의 旅行

내가 고무工業會에 들어와서 아마 40年 가까이 되며 더우기 最近에는 고무工業會의 會長 등 까지도 맞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럽지마는 天然고무의 原産地를 아끼까지 訪問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古河 그루옴이 濠洲視察團을 編成하여 호주를 訪問하고 나도 副團長으로서 同行한 것을 好機로 歸路 싱가포르, 쿠아라루퐁 등 天然고무 原産地를 視察하고 왔기 때문에 그 報告를 하고자 한다. 또 호주 視察旅行은 古河 그루옴의 一員으로서의 旅行으로서 고무와는 何等 關係가 없으나 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가 보아서 비로소 알게 된 것도 數多하였으므로 이에 그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한다.

特出한 開發規模

호주에는 6個의 州가 있는데 今回의 旅行에서는 그 中의 5個州를 돌아보았다. 滋味있는 것으로 이 나라는 州政府의 힘이 強하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旅行日程의 調整하나만 하더라도 中央政府에 가는 것 만으로서는 헛일이고 一히 州政府에 나가서 決定하지 않으면 안 된다.

産業開發等에 對해서는 그 援助의 주는 方法도 州에 따라서 하나 하나 다르다. 또 그 開發이란 것이 日本과는 全然 그 趣旨가 다르다. 廣大한 土地이므로 鑛山 등이 開發될 때의 狀況을 좀 들어 보면 鑛脈이 發見될 만한 곳은 廣大한 原野에 鑛脈이 發見된 小山 程度의 언덕이 하나 있고 뒤는 아무것도 없다.

鑛石을 파기 爲해서는 從業員의 社宅 單身者用寮 등

의 住宅은 勿論 病院이나 警察 郵便局 등의 公의建物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은 現地의 思考方式대로 하면 全部開發公社가 負擔하기로 된다. 政府가 해주는 것은 病院에 看護婦를 周旋한다든가 警察署에 巡警을 派遣한다든가 하는 程度의 것이다. 故로 좀 큰 鑛山 등의 開發이 되면 最初의 開發費에 아마 30億弗 정도는 어렵잖게 드는 큰 일이다.

판 鑛石을 運送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다.

如何든 鐵道 港口부터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또 資源이 豊富해서 原材料를 他國에 輸出할 뿐 아니라 어느정도까지는 加工했으면 하는 生覺인 것 같으나 어떻게든 人力이 不足하므로 如意치 않는 現狀인 것이다 그래서 伊太利나 希臘 等地에서 오는 移民을 歡迎하고 있으며 이것이 大體로 年 80萬人 정도라고 하는데 이 移住費가 굉장하다. 移住費는 그 무슨 90%까지를 政府가 補助하고 있잖는가, 이것은 이미 그저 「補助」라는 등의 손쉬운 말로 표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도 人力이 모자란다. 그런데 호주에는 有名한 白濠主義가 있어서 有色人種을 國內에 오랫동안 안 넣었다 日本人은 어떻게든 물어보니 技術者라든가의 特種의 사람들은 와주었으면 싶으나 炭鑛이 閉山되었다고 해서 그곳의 사람들이 5千人이고 6千人이고 한 참에 갑자기 들어닥치는 것은 困難하다고 한다.

이런 點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도 白濠主義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 같다.

濠洲의 交通과 業界

英國系의 사람이 많고 本是는 英領이 있으므로 自動車가 左側通行과 英國의 방식을 踏襲하고 있다.

日本도 左側通行이므로 車는 右핸들일테다. 그러나 美國의 車는 左側 핸들이란다. 그런데 호주에선 美國의 車도 右핸들의 것이 상당히 있다. 美國의 車가 日本에 오면 左핸들 인체이고 호주에 가면 右핸들로는 얼마간의 差別待遇를 느끼게 된다.

自動車 數는 乘用車가 4百萬臺, 人口가 千2百萬人 이므로 3人에 1臺꼴이다. 日本의 保有臺 數는 2千萬臺로서 人口 1億 1千萬人이므로 事情은 大端히 다르다. 가장 넓은 土地이므로 車가 없이는 안되는 수도 있고 해서 日本보다는 自動車가 더 密接하게 生覺되고 있다.

道路는 나쁘다. 鋪裝은 되어 있는데 처음은 시멘트도 쓰고 있으나 참말로 코운 砂利는 混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小石이 티어나와 있다. 그레까지고서야 타이어의 마모가 빠르고 質上은 좋을테지...(웃음)

호주의 타이어 메이커에는 굼릿치 던롭프 등이 進出하고 있으나 그정도로서 수요는 大體로 充足되고 있는 것 같다. 없는 것은 輸入하고 있으나 濠洲 굼릿치 등은 從業員 650人 정도밖에 없다. 이것은 기껏해서 우리(요코하마고무株)의 三島工場과 上尾工場의 中間 程度의 규모이다. 그것으로 온갖 사이즈를 製造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요코하마고무株) B. S (株)氏, 東洋(株)氏등 日本의 메이커어가 輸出된다. 日本의 OR 타이어는 BS氏, 도오오오氏 등이 輸出되고 있으며 政府의 鑛山에서 活躍하고 있다.

이것은 日産(株)氏 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日本의 自動車産業은 「마쓰다」가 部品를 全面輸入하여 現地에서 組立한다. 日産氏는 部品の 60%는 現地에서 만들고 40%를 輸入으로 하고 現地에서 組立한다. 豊田(株)氏의 경우도 大體로 그러한 것 같다.

SMR은 増産 傾向

濠洲視察團도 71年 10月 9日에 現地에서 解散했기 때문에 나는 天然고무의 生産地를 見學하려고 싱가포르, 쿠아라루푸울 등에 발을 들여 놓고 2週間の 天然고무 生産地 視察旅行을 했다.

公式로 가면 바빠서 天然고무의 生産視察은 姑捨하고 사람과 面會하는 것만으로도 日程이 -packed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加商의 現地駐在員에게 付託해서 非公式의 形式으로 했었는데 만날 만한 사람은 어김 없이 만나보고 불만한 것은 어김 없이 보고 왔다.

싱가폴에서는 토로피칼이라고 하는 SMR의 工場과 같은 토오호오라고 하는 工場의 들을 보았으나 이 두 개의 工場을 比較하면 設備의 近代化란 面에서 토로피칼이 월등하게 發達된 것으로 生覺되었다.

案内해 준 분에게 물었더니 合理化가 進陞되어 있는 工場으로서 이 2개 工場이 代表的인 것이며 토로피

칼은 最高의 SMR工場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로부터 쿠아라루푸울에 가서 天然고무 研究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實驗栽培場, 實驗工場 등을 見學했다.

이들의 施設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나 政府가 資金을 내고 있지는 않고 全部民間의 資金으로 運營되고 있다. 내가 들은 바에 依하면 確實히 고무 1파운드당 1센트를 生産者가 運營資金으로서 差出하여 이런 研究기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곳의 研究는 大端히 發達하고 있어 感嘆했다. 내가 본 것은 新種의 고무나무를 育成하고 있는 곳으로서 목은 고무나무의 껍질을 깎아서 뿌리가 있는 고무나무의 새 싹을 따서 그 곳에 貼付하고 새로 테이프인이 된가로 잡아둔다.

그렇게 하면 新種의 고무나무가 되는 모양이다.

라텍스의 工場도 보았는데 고무液을 모아 가져오고 와서 濃縮하고 있다. 濃縮할 때에 가스가 나면 그 가스까지 有意義하게 使用해서 조금도 浪費가 없는 方法으로 生産하고 있다.

들은 바에 依하면 라텍스는 버릴部分 등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본 이 工場은 英國인이 經營하는 것 같다. 또 한가지 고무나무의 이야기로서 滋味있는 것을 들었다. 나무를 새로 끊으면 2.3時間은 고무液이나 오는 모양인데 그 後에 에스케이에트라라고 하는 方法으로 탈핑한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어떤 藥品을 칠한다. 이렇게 하면 1日 以內에 비만 안오면 껍질을 벗긴 部分에서 또 고무液을 採取할 수가 있기 때문에 收穫은 約 2倍가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今後의 쿠아라루푸울(마레이지아聯邦)의 고무는 從此로 植付面積이 좀 줄게 되더라도 生産量은 增加하게 된다.

또 現在는 아직도 小量이나마 1975년에는 年間 100萬톤의 SMR을, 同80년에는 마레이지아의 고무의 全部를 SMR로 할 計劃이라고 現地 指導者들은 말하고 있다.

SMR은 元來 나무 周圍에 붙은 고무液을 脫離한 境遇 나무의 周圍에 고무液이 흐르게 된다. 이것을 고무로 되살리려는 것이 起源인데 이미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인도네시아의 IIR이란 나쁜 고무를 갖고 와서 그것에 부탄케트를 내어서 精製한다. 몇번이고 로어루에 걸어서 水洗를 하여 그것에 溫度를 加해서 水分을 蒸發시켜서 프레스로 눌러서 야물게한다.

그런 工程으로 된다.

品質의 바라키에 注文

SMR은 原則적으로 品質에 差가 없는 것이 特徵이기는 하나 實際로 使用하는 立場으로서는 大體로 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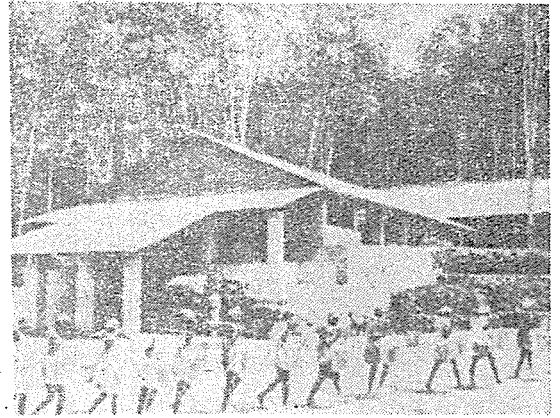
質에 差異가 있으므로 天然고무 研究所의 사람에게 「SMR의 品質의 바라키를 없애주었으면 하고」 要望해 두었다. 同行한 加藤도 「會長 좋은 말씀 했습니다. 우리들이 말해도 그런 것은 없다고 하며 바로 對答을 안 해주는데 日本 고무 工業會의 會長의 要望이므로 잘 들어 준 것에 틀림 없습니다.」하며 宏壯히 즐거워 했다. 나의 申請을 快諾해 준 現地의 指導者는 當身네들이 어떠한 性質의 고무가 所願인지 注文이라도 해 주면 꼭 그대로의 物件을 出荷하는 것인데...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現在 生覺해 보니 싱가포르에서 工場을 보았을 때 製品을 包裝紙의 色갈 別로 區分해 놓았었는데 그것은 出荷國別로 해 두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우리들이 使用하고 있는 合成 고무로 말하더라도 SBR, BR 等이라고 一言으로 해치울 수는 없고 풀리머어 메이커에 對해서 品質에 注文을 붙여 各各의 用途에 適合한 合成 고무를 購入하고 있는 것이 現象이다.

天然고무에도 그런 式의 注文方法을 取하는 것도 必要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然이나 同行한 캐나다 商人의 말에 依하면 品質을 向上시키는 것이 即 가격에 影響을 주는 것이 된다고 하며 現地에선 플라이스 等に 지지 않는 高級 品質의 天然고무가 용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價格이 오르는 일도 困難하다.

이 天然고무 研究所에서 가장 힘을 기울여서 開發을 하고 있는 것은 自動車 타이어用의 SMR로서 이는 이미 歐洲나 美國에서 好評인 것 같다. 호주나 싱가포르 쿠아라루푸울 等 天然고무의 生産地를 돌아와서 지금 痛感하는 것은 日本사람들과 그쪽 사람들의 思考方式



마레이시아聯邦의 貴重한 財源인 天然고무 林

의 差異이다. 特히 天然고무林의 經營하나만 하더라도 經營者의 利潤에 對한 思考方式이 日本人과는 相當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저쪽에 나갈 때에도 그쪽 事情을 잘 알고 가지 않으면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된다.

호주와 같은 나라는 加之하여 人種의 問題도 있다.

그래서 돈이 있으므로 海外에 會社를 가져야 겠다고 해서는...하긴 그것이 今番의 古河 그루울 訪濠視察團의 目的이 었기는 했지만(웃음) (끝)

(記者會見時에 들어서 쓴것으로서 文責은 編輯部에 있음)

<71年 12月號 月刊 自動車 타이어 誌에서 전재 : 會誌課註>

會員動靜

☆ 韓國타이어(株)

6.24 다음과 같이 異動發令

柳祐永 調査課長代理가 依願免職되고 李秀雄 營業部 特殊營業課長代理가 同部 調査課長代理로 轉補됨

☆ 東信化學(株)

1. 6.10 本社가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文來洞 2街 36番地에서 同市同區 始興洞 601番地로 移轉됨으며

2. 本社의 電話番號는 다음과 같음

秘書室 ⑧ 4017

交換 ⑧ 4011~4

直通 ⑧ 4010

直通 ⑧ 4015~9 (이중 4015~6은 販賣部)

⑧ 4242

⑧ 4581~3

⑧ 4592

☆ 三陽타이어(株)

1. 윤원구 輸出課長 문창대 開發課長은 5.23~

6.23 中近東 地方에 市場調査次出張

6.1 박병희 教育課長 新任

2. 5.30 本社機構 다음과 같이 一部改編됨 總務部에 人事課, 教育課를 新設하고 倉庫課의 원료고係를 資材部로 移管, 總務課內에 庶務係 涉外係 鄉軍係, 警備係를, 人事課內에 人事係, 勞務係, 安全管理係를, 購買課內에 資材係를 新設